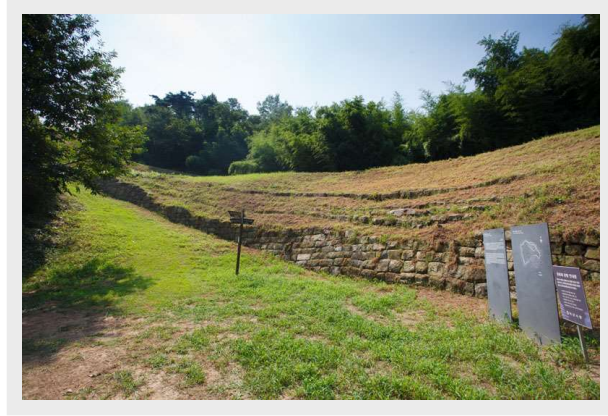


안승[安勝]

고구려 부흥운동의 구심점



익산토성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1 개요

안승은 고구려의 왕족이자 고구려 유민이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부흥운동을 하던 검모잠(劍牟岑)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다. 이후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에 망명해 고구려왕(高句麗王)에 이어 보덕왕(報德王)에 봉해졌다. 그러나 신문왕(神文王)은 안승을 경주로 이주시키고, 신라의 귀족으로 만듦으로써 보덕국(報德國)을 해체했다. 이후의 행적은 전하지 않는다.

2 안승의 가계

안승은 『신당서(新唐書)』에 안순(安舜)이라고도 나온다. 후에 세운 보덕국의 이름을 따서 보덕왕 혹은 보덕국왕(報德國王)이라고도 한다. 안승의 부계에 대한 기록은 사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에서는 연개소문(淵蓋蘇文)의 동생인 연정토(淵淨土)의 아들이라고 하였고, 같은 책의 고구려본기에서는 보장왕(寶藏王)의 서자라고 하였다. 중국 측의 『신당서』에는 보장왕의 외손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보장왕의 서자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연정토의 아들로서 보장왕의 외손자라는 해석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안승의 성은 고(高) 혹은 연(淵)일 것이며, 후에 신문왕에게 김(金)씨 성을 하사받기도 했다.

안승은 보덕왕에 봉해진 이후, 문무왕(文武王)의 조카를 왕비로 맞았다. 그리고 신문왕(神文王) 때 반란을 일으킨 보덕국 장군 대문(大文)은 안승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모계나 자식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출생과 사망 연대 역시 알 수 없다.

3 고구려 부흥운동과 한성(漢城) 고구려국의 성립

668년(보장왕 27, 문무왕 8) 9월, 평양성(平壤城)이 함락됨으로써 고구려는 멸망했다. 당은 고구려 고지 지배를 위해 평양에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설치하고, 설인귀(薛仁貴)를 검교안동도호(檢校安東都護)로 삼아 유인궤(劉仁軌)와 함께 2만의 군사를 주둔시켰다. 그리고 고구려 전역을 9도독부(都督府) 46주(州) 1백 현(縣)으로 나누고, 당에 협조적인 고구려인들을 뽑아 고구려 고지를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고구려인의 수는 일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당의 관리가 고구